

AI 기반 웹소설 번역과 인간의 역할 고찰 -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김자경**

Jagyeong Kim (2026). An interview-based study of AI-assisted web novel translation and human roles therein. This study examines the adoption of AI in Korean web novel translation, focusing on its potential and limitations, current workflows, the competencies required of revisers, and the emerging roles of translators. Based on interviews with industry professionals from two companies developing AI-assisted translation platform for web novels, the study found that AI demonstrates a strong potential for improving translation efficiency; however, translation quality control remains a significant challenge. As a result, current workflows continue to rely on a combination of AI translation and human revi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revisers require not only linguistic proficiency but also genre literacy, cultural sensitivity, and localization competence. In addition, new professional roles are emerging in the industry, including highly proficient web novel translators, AI translation quality-control specialists, localization experts, and project managers. The study highlights the continued importance of human expertise in AI-assisted translation environments and underscores the need for industry-linked education programs tailored to web novel translation. (Seoil University, Korea)

Keywords: Korean web novels, web novel translation, AI-assisted translation, human-AI collaboration, translation education

* 본 논문은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귀한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대표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포함합니다.

** 서일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026년 2월 뉴욕타임스에는 프랑스 로맨스 출판사 할리퀸이 AI 번역 도입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에 격노한 번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판사들 역시 AI 번역으로 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는 분위기라는 기사가 실렸다. 2024년 11월에는 네덜란드 출판사 VBK가 상업 소설의 번역에 저자의 동의를 받은 후 AI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AI라이프경제 2025). 상업적 대중문학은 AI의 영향을 먼저 받는 만큼 웹소설 번역 업계도 비용 절감과 대량 생산을 목표로 AI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웹소설은 장르적 성격과 규범이 명확하여 AI가 웹소설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비교적 용이할 뿐 아니라 방대한 학습 데이터까지 갖추고 있어 AI를 활용한 웹소설 창작의 가능성까지 높히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박성준 2024) AI 번역의 도입과 활용은 이미 가시화된 흐름이지만 향후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번역 도입의 과급력은 중국 웹소설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AI 번역에 힘입어 중국 웹소설의 해외 시장은 2024년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해 7억 달러 규모에 달했고 해외 독자층도 2023년 2억 3천만에서 2024년 약 3억 5천만 규모로 증가했다(Sixth Tone 2025). 2024년 11월 기준, 중국 웹소설 플랫폼 웹노벨(Webnovel)의 베스트셀러 상위 100위권 웹소설 중 42%가 AI 번역이었으며 번역물의 70%가 AI로 초안을 생성한 후 인간이 편집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번역 비용을 90% 이상 절감했다(Sixth Tone 2025). 국내에도 한국 웹소설에 특화된 AI 번역 모델을 개발하여 번역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많은 작품을 해외 시장에 유통하겠다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웹소설 특화 AI 번역 모델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두 국내 업체 대표와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AI 번역의 도입 배경, 그 가능성과 한계, 인간과의 협업 및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기대 역량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규모 인터뷰라는 점에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현재 국내에서 자체 AI 번역 모델과 플랫폼을 구축한 업체가 소수라는 점에서 제한적이거나 업계 상황과 수요, 관점을 이해하고, 생성형 AI의 출현이 번역가에게

불안을 추동하는 시기에 현장의 구체적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며 향후 교육 방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2. 한국 웹소설 수출의 최대 난관, 번역

웹소설 수출에서 번역은 단연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만하다. 이미지가 동반되는 영상, 웹툰과 달리 웹소설은 오로지 텍스트로 전달되는 장르인 만큼 번역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현지 문화 코드와 정서, 독자 수용도를 고려한 세심한 현지화 작업도 필수적이다. 류(Liu 2024: 348-349)에 따르면, 중국 웹소설의 수출에서도 번역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웹소설은 분량이 길고 번역 난도가 높아 관련 번역 교육에 투자해야 하고, AI 번역과 인간의 후편집 방식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24년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소설 플랫폼 및 CP사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공공 지원으로 가장 많이 답변한 항목은 “번역 지원”(60.4%)이었다. 1, 2순위를 합쳐도 “번역 지원”이 79.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필요한 지원은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교육 제공”(49.1%), “해외 네트워크가 강한 기업과의 연계”(26.4%), “각색 지원”(20.8%), “파일럿 제작 지원”(15.1%)이었다. 즉, 수출을 위해 해외 시장 정보와 네트워크, 각색과 파일럿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지원은 번역이라는 것이다. 이 결과는 다수의 전자책 출판사를 포함한 결과에서도 변함이 없었으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업력에 따라 나눈 결과다. 10년 이상 업체는 번역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7%였으나, 5~10년은 78.1%, 5년 미만은 84.4%로, 10년 이상 업체도 번역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지만, 5년 미만 업체일수록, 즉 신생 업체일수록 번역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번역 지원의 필요성은 웹소설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해외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공 지원으로 “번역 지원”이 1순위(52.9%)로 꼽혔으며(1, 2순위를 합친 결과는 77.9%), 성별, 연령, 경력, 장르, 매출액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이는 한국 웹소설이 글로벌 독자를 만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번역이며 번역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김자경과 김혜림(2021)은 한국 웹소설을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

는 번역가 4명, 웹소설 수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 관계자 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웹소설 번역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는데, 인터뷰 결과에서도 한국 웹소설 수출에서 번역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번역의 난이도, 열악한 번역 환경도 문제점으로 거론되었으나 특히 번역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웹소설은 텍스트 기반 장르이며 연재 방식이므로 번역해야 할 분량이 많아 번역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낮은 단가와 품질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게다가 웹소설은 기존 문학 장르와 다른 독특한 문체적 특징이 있고 가독성 있게 읽히면서도 장르적 특징과 현지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 역시 번역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번역료 지원과 웹소설 번역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감수 프로세스와 번역 작업 환경 개선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웹소설의 해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2024년부터 홍보자료 및 샘플 원고의 번역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25개사 29종, 2025년에는 41개사 68종이 번역 지원을 받았고 올해도 약 40개사 내외의 출판사와 플랫폼사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전문 웹소설 번역가 양성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024년 8월~12월 총 12주에 걸쳐 주 1회 2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번역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하에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연구소가 산학 연계형 웹소설 번역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4개 언어권(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으로 5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3. 국내 웹소설 번역과 AI의 활용

한국 웹소설 수출 지원을 위해 번역 비용 지원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 앞에 AI가 구원자 역할로 등판하고 있다. AI 웹소설 번역 앱도 출시되었는데 예를 들어, 테일시(Talesy)는 안드로이드 기반 웹소설 번역 앱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쓰인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며, 이전 회차의 대화와 사진, 인물 관계를 기억하여 일관성 있는 번역을 제공하고 프롬프트 설정, 배경과 관계 수정, 특정 단어 바꾸기 기능 등 독자 편의를 위한 여러 기능을 제공한다. 해외 웹소설을 한국어로 바꿔주는 앱뿐만 아니라 한국어 웹소설

www.kci.go.kr

을 외국어로 번역해 주는 도구도 찾아볼 수 있다. Webnovels AI(<https://webnovelsai.com>)는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쓰인 웹소설을 영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 주는 도구로, 웹소설 번역에 특화된 기능을 갖춰 구글 번역보다 높은 번역 품질을 도출한다고 설명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웹소설 특화 AI 번역 기술을 선보이는 업계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하이브마인드는 웹소설 기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AI 번역 솔루션 오로라(Aurora)를 활용하여 현지화 작업을 진행하며, 작품 전반의 서사 흐름과 캐릭터 말투, 설정 정보 문제를 지속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술을 통해 초별 번역을 한 후에 전문 번역가의 검수를 거치는 프로세스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BeSUCCESS 2025). 메타크래프트는 AI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웹소설 플랫폼 노벨피아 글로벌(Novelpia Global)의 서비스 개시 3개월 만인 2025년 12월 4일, 누적 조회수 6,800만 회를 기록하였으며, AI가 생성한 초별 번역을 현지 독자가 장르와 문맥에 맞게 보완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번역 속도와 현지화 정확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동아일보 2025). 2024년 9월 설립된 리베타는 웹소설 특화 AI 번역 프로그램 트리니티(Trinity)를 개발하고 자체 개발한 AI 번역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글로벌 유통 플랫폼 오모픽션즈에서 AI 기반 번역 작품들을 공급하며(한경 2025), 스텔라앤은 웹소설 AI 번역 솔루션을 개발하고 2025년 3월에는 웹소설 플랫폼 투니즈(Toonyz)를 런칭하며 특허 출원을 받은 1억 토큰의 데이터셋이 학습된 AI 현지화 솔루션을 탑재하였다(중앙SUNDAY 2025). 인피닉션은 웹소설 특화 다중 에이전트 번역 시스템을 통해 번역 효율을 95% 이상 높이는 기술로 한국 웹소설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제시하며 초기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2025 KU IR Camp' 데모데이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NewsWire 2025) 웹소설 AI 번역 기술을 활용한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을 토대로 넥스텝(NAACst Step) 7기 데모데이에서는 대상을 수상했다(Platum 2025).

AI를 활용한 웹소설 번역이 도입되며 AI 번역 결과물을 검수하기 위한 채용 공고도 하나둘씩 나오는 추세다. 인피닉션은 2025년 7월 영어 번역 검수 인턴, 9월 일본어 번역 검수 인턴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다. 담당 업무는 AI 번역 품질 제고로, 오역과 오류를 검수하고 문화적 뉘앙스를 살리며 글로벌 독자의 관점에서 번역물을 평가하고 AI 번역 엔진 발전에 기여하며 현지화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대사항으로 탁월한 영어 실력, 북미권 문화에 대한 이해, 번역 및 검수 경력, 웹툰과 웹소설 등 K-콘텐츠에 관한 관심과 애정, 꼼꼼함, 책임감이 제시되었다. 2026

년 3월 기준, 보이스루는 AI를 활용한 영어 웹소설 번역물의 오류와 누락, 문맥 불일치를 수정하고 스타일가이드와 설정 기준에 맞춰 품질을 조정할 영어 번역 검수 프리랜서를 모집하며, 리베타는 AI 번역 QA 리드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주요 업무는 AI 번역물의 오역, 누락, 어색한 표현 교정, 원문 문체와 감정선의 자연스러운 전달 및 언어·문학적 완성도 검수, 작품별 스타일가이드 수립 및 운영, 안정적인 번역 품질과 생산성 확보를 위한 QA 프로세스 설계, 오류 패턴과 장르 특성에 따른 번역 난점 피드백, 프롬프트 최적화 및 번역 모델 개선이다. 자격 요건은 번역 역량, 여성향 웹소설에 대한 이해와 관심, 소통 역량, 영어권 국가 6년 이상 거주 경험이며, 웹소설의 적극적 소비자, 번역·출판 실무 경험, 번역학 학위와 연구 경험, AI 번역툴 활용 경험이 우대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업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로 AI 결과물의 오류 수정 및 가독성 개선과 현지화 작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웹소설 수출에 주요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번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이 적극 도입되고 있는 단계임을 보여준다.

4. AI 기반 웹소설 번역 연구

생성형 AI 등장 후 국내에서는 AI를 활용한 문학 텍스트의 번역 결과물을 평가하고 AI 문학 번역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전통적 문학 층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웹툰과 웹소설 등 플랫폼 기반 디지털 서사 콘텐츠에서는 AI 번역 관련 논의가 많지 않다. 상대적으로 웹툰은 기계번역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마승혜와 김순영 2021; Abid and Moon 2024), 웹소설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찾기 어렵다. 반면 중국에서는 웹소설의 AI 번역 논의가 활발한데, AI 번역 모델의 개발과 활용, 품질 평가, 팬 번역에서의 AI 활용 연구로 나뉘볼 수 있다.

중국 웹소설의 인간 번역과 GPT-4 번역을 비교한 야오 외(Yao et al. 2025)는 어휘, 구문, 내용 측면에서 AI와 인간 번역 결과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하며 AI 번역의 잠재력을 크게 평가했다. 다만 모호한 문장 이해, 반복적 문장 구조, 고유명사의 과도한 음역, 다의어 번역 등에서 오류가 나타났고 특히 원문의 미가 모호할 경우 번역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번역가와의 협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외(Wu et al. 2024)는 LLM 기반의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을 활용해

웹소설 번역을 수행하였다. 5명의 에이전트(시니어 에디터, 주니어 에디터, 번역가, 현지화 전문가, 감수자)로 구성된 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일관성과 현지화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물을 도출하고, 번역 비용을 95% 이상 낮추며 GPT보다 고품질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천 외(Chen et al. 2025)는 웹소설 번역에서 AI를 활용할 때 캐릭터 이름, 관계성, 세계관에서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웹소설 번역 특화 MTBERT-NMT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이 주로 웹소설 번역의 AI 활용 가능성을 부각하는 반면, AI 활용의 한계에 무게가 실린 연구도 있다. 귀와 아미르다바기안(Guo and Amirdabbaghian 2025)은 중국 웹소설 번역에서 AI가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사자성어의 처리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AI와 인간 번역 결과물을 비교한 결과,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고 옮기는 데 AI의 한계가 크고 인간 번역가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AI를 활용한 웹소설 번역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큰 축을 이루는 한편, 팬 번역에서의 AI 활용도 논의되고 있다. 중국 웹소설은 팬이 기계번역을 활용해 번역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며, 웹노벨은 2019년부터 AI 기반 웹소설 번역을 시작했고 독자가 직접 번역물을 수정하는 독자 참여형 모델을 활용한다(Mei 2019). 장(Zhang 2024)은 중국 웹소설의 해외 시장이 커지고 있으므로 기계번역의 폭넓은 활용 및 팬과의 협업이 필요하고, 팬 번역에 관심이 있는 언어 전공생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것을 추천했다.

이 연구들은 AI 번역 모델 개발과 결과물 평가,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인간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있으나 인간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모호하게 남겨진 상태다. AI를 활용한 팬 번역도 비전문가 맥락의 논의이므로 웹소설 전문 번역가 양성 교육이 이뤄지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AI 기반 웹소설 번역을 진행하는 업체 관점에서 인간 역할과 필요 역량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5.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자체 개발한 웹소설 특화 AI 번역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 웹소설을 외국어로 번역하고 글로벌 플랫폼을 운영하는 두 업체 대표와 진행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다.¹⁾ 인터뷰는 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2026년 3월 13일과 3월 17일에 약 두 시간 내외로, 각 업체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사전 양해를 구한 뒤 녹취 및 기록하였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 인터뷰는 모두 반구조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에 앞서 사전 질문지를 제공하였다. 사전에 전달한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웹소설 번역에 특화된 AI 번역 모델을 개발하게 된 계기
2. 일반 번역 모델과의 차이, 발전 방향
3. 웹소설 번역에서 AI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
4. AI 번역 기술의 발전이 한국 웹소설 수출, 유통 등에 미치는 영향
5. AI 기술 기반의 웹소설 번역 과정에서 인간과 AI의 협업 방식
6. AI 번역 결과물의 품질 평가, 교정 및 중요성
7. AI 번역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 번역가의 역할 변화
8. AI 번역·콘텐츠 기업이 기대하며 필요로 하는 역할, 직무, 역량
9. 외국어·번역 전공 학생들을 위한 조언, 또는 웹소설 번역 교육 관련 제언
10. AI 번역, 콘텐츠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직무, 인제 수요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웹소설 특화 AI 번역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웹소설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업체 수가 소수인 데다 인터뷰 참여자가 업계와 학계의 상생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번역가로서의 진로와 역할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현실적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풍부한 경험과 조언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웹소설 번역에서 AI를 활용하게 된 배경, 활용 상황, 가능성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AI를 활용한 번역 과정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필요 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 한 업체는 익명을 요청한 관계로 기업명을 밝히지 않으며 다른 한 업체는 스텔라앤임을 밝힌다(이후 논의에서 업체 B는 스텔라앤).

6. 인터뷰 결과 분석

6.1. 웹소설 번역에서 AI 기술의 활용 배경

AI 기술 도입 배경에 대해 두 업체는 웹소설의 장르적 특성상 번역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 AI를 활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포화 시장에 해외로 진출하고 싶다는 의견이 너무 많았어요. 게다가 그때 SNS를 하다 보니까 해외 팬들이 번역이 없어가지고, 뭐 불법으로 읽기도 하지만 불법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한국 사이트에서 한국어로 사가지고 자기들이 번역기를 돌려 읽는 모습을 보고, 아, 수요와 공급과 기술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게.” [업체 A]

“웹소설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품에 비해서 금액, 사업적으로 봤을 때, ROI가 들어간 비용 대비 너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AI가 훨씬 더 품질이 낮았을 때인데 어떻게든 코퍼스 형태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서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웹소설 번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한국에 진짜 좋은 웹소설 IP가 많거든요. 좋은 소설들이 많은데 해외로 나아가지 못하는 허들이 있었어요. 그게 번역의 장벽이었고, 그래서 기본적인 드래프트 정도는 AI가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빠르게 사업화를 하자, 라는 의도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체 B]

또한 AI 번역 기술의 활용 측면에서 웹툰은 그림을 보면서 맥락을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 번역의 효율성이 더 크고, 물론 AI 성능과 데이터셋 구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디자인 요소가 없는 웹소설 번역에서 AI 번역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기준에서 웹툰은 디자인적 요소가 들어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빠르게 번역을 하는 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도 있고, 정말 이거는 그림을 보고 맥락을 같이 봐야 되는 거라서 그림까지 같이 이해도가 있지 않으면 텍스트만으로는 하기에는 정말 조금 더 어려워요. 그림까지 같이 보면서 AI가 맥락을 읽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와 양질의 데이터셋이 잘 구축이 돼서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회사가 뭐 있겠죠, 하지만 쉽지가 않다, 특히 스타트업은 더 어렵다. 그래서 어설 프게 할 바에는 차라리 진짜 훈련된, 숙련된 사람이 빠르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식자 작업을 하거든요. 그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 부분에서 효율성을 올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웹소설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쉽다는 건 아닌데 웹툰과 웹소설을 비교했을 때는 공수가 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해요. 디자인적 요소가 없고 텍스트만으로 구성이 됐니까. 하지만 이제 좋은 품질이 나오기 위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봐야 되는 영역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봤을 때는 이제 애는 텍스트만 있으니까.” [업체 B]

웹툰은 디자인 요소, 의성어와 의태어, 그림과 맥락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 이는 점을 고려해 식자 단계에서 AI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며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웹소설은 텍스트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AI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품질 향상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있지만 업무 프로세스 측면에서 봤을 때 AI 번역 활용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었다.

6.2. 웹소설 번역에서 AI 활용의 어려움

두 업체 모두 웹소설 번역에서 AI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는 입장이었으나 AI 활용이 생각만큼 녹록지 않은 문제임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했다. 첫째, AI 번역물의 품질 문제다. AI를 활용할 때 문화적 뉘앙스, 감성적 맥락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고 때로는 환각,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 문화 특유의 정서와 문화적 맥락이 담긴 표현 등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화적 맥락과 뉘앙스 이해가 필요한 표현은 AI가 직역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도착어 표현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인간 개입이 빠질 수 없고(B사), 규칙화의 어려움, 불분명한 주어, 시점 처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거론되었다(A사).

“규칙화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좀 커요. 예를 들면 기술 번역을 할 때 A는 무조건 A'로 번역이 되어야 되고 B는 무조건 B'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그게 안 되고. 예를 들면 어두운 숲이라는 장소가 나올 때 이 어두운 숲이 진짜 특정 지명을 가리키면 대문자로 시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어두운 숲을 의미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소설에서. 이

www.kci.go.kr

게 규칙화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변칙적인 게 많다는 게 정말 어려운 점이고. 그리고 한국어 특징이 주어를 알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 시점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읽어도 누가 주어인지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럼 AI는 판단을 내릴 때, 근데 사람은 적어도 일관성 있게라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AI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으면 사실 끝이 없어요” [업체 A]

둘째, AI를 활용할 때 번역의 정확성과 유창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고, AI가 웹소설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설명도 있었다. AI는 작품의 세계관, 저자 의도와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한 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번역에는 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보통 기계번역을 평가할 때 세 가지 기준 정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도랑 유창성, 스타일을 쓰는데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정확도와 유창성은 상충 관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추구할 수 있지만 너무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면 유창성이 떨어지고, 유창성을 많이 올리려면 사실 정확도를 많이 포기해야 돼요. 작가가 안 한 말도 넣어줘야 되고, 설명을 하려고. 작가가 한 말도 삭제해 과감하게 시켜야 되거든요. 사용자가 읽을 때 어떨지 모르니까. 근데 AI는 전혀 그 판단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읽으면서 이 정도는 작가가 하려는 메시지를 해치지 않고 세계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더하고 뺄 수가 있는데, 저희는 AI의 판단을 신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맡겨둘 수가 없어서 아, 일단 정확하게 하자. 근데 그러면서 유창성도 추구해야 돼. 근데 상황마다 판단 기준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AI한테 그거를 가르쳐주기가 사실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걸 봤을 때 AI를 쓰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업체 A]

셋째, 웹소설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번역 품질이 매우 중요하고 독자 몰입을 형성하려면 긴 서사 내내 일관성을 유지하며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데, AI 활용 시 높은 품질의 번역 결과물을 안정적으로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다. 웹툰, 영상과 달리 웹소설은 몰입을 유지하려면 높은 품질의 번역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강조된 의견이었다. A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품질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얻기까지 상당히 많은 길이 남았다”라고 판단했는데, “LLM이 편각이 심하고, 파인튜닝보다 모델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모델의 발전에 따라 번

역 기술이 늘 함께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번역의 측면에서는 계속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웹소설은 형식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일반적 소설의 형식을 지키지 않을 때도 많으며 신조어가 많이 들어가고 혁신을 추구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품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넷째, 웹소설 독자층의 성격상 AI 활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이는 웹소설의 하위 장르나 목표 시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두 업체의 의견도 약간 달랐다. 우선 A사는 독자층의 반발을 크게 강조하였는데, 서브컬처 독자층의 경우 AI 번역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크다는 설명이었다.

“웹소설 번역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통인데 AI로 이제 기술은 1차적으로 쉬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유통과 마케팅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팔리는 거는. 누구든 이제 번역을 하거나 좋은 서비스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잘 파는 거는 여전히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중국 웹소설도 AI로 대량으로 하고 있다, 하는데 예를 들어 BL 독자들은 마니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AI 번역을 정말 싫어합니다.” [업체 A]

AI를 활용해 번역한다는 점을 밝힌 후 구독을 취소하는 독자들도 있었고, 중국도 무차별적으로 AI를 활용하기보다 콘텐츠와 품질을 고려해 선별적 접근을 하고 서브컬처 팬덤은 번역 품질에 대해 까다롭고 민감하다는 것이다.

“기기(중국)도 되게 선별적으로 번역해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미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거, 있는 거, 유명한 작가들 거만 굉장히 선별해서 번역을 하고 있고 양이 많아 보이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전 세계에 중국어, 영어 동시 화자가 너무 많아서 수월해 보이는 것뿐이지, 업계에서는 엄청나게 AI를 꺼리고 있어요. 그리고 퀄리티 저하가 상당한 이유를 차지하고. 왜냐하면 웹소설은 아직까지 서양에서 대중문화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중문화인데 웹소설이. 서양에서는 일본이나 중국, 한국의 웹소설 번역본을 보는 게 굉장히 서브컬처란 말이죠. 근데 서브컬처 팬덤들은 특징이 대중보다 간간하고 번역 퀄리티에도 간간하고 원작 뜻을 더 알고 싶어 하고 IP를 굉장히 깊게 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물책을 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디지털보다도. 그리고 나오면 굿즈도 사야 되고 이런데. 그냥 대중 웹소설 매일매일 뭐 한국 독자처럼 일주일에 세네편씩 보고 이러면 대량 소비를 하는 집단이면 뭐 사실 번역 퀄리티에 상관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쯤 몇몇 작품을 정말 깊게 파서 한국어로 된 드라마

www.kci.go.kr

CD까지 30만 원 쥐가면서 보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번역 퀄리티에 민감한 게 당연하고 AI에 반대를 너무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업체 A]

웹소설을 구매하는 서구권 독자는 윤리의식도 높고 인간 번역 대체에 대한 반감도 높아 웹소설 매출의 측면에서 인간 번역과 품질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B사는 AI 번역을 활용해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의 전략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AI 번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고 비용 부담은 큰 상황에서 AI 도입 없이 해외 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꼬집으며, “물량으로 승부하는” 중국의 경우 웹노벨이 물론 일부 비판을 받지만, 물량 공세 속에서 이제는 많은 독자들이 어느 정도 품질 하락을 감내하며 AI 번역물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좋은 콘텐츠들이 글로벌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럼 돈을 많이 주든지. 그래서 제대로 하계끔 만들든지, 사람을 많이 붙이든지, 어떤 정책적인 것도 부족해.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중국은 물량으로 승부할 거라고 밀고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웹노블이라는 플랫폼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물론 당연히 일부에서 욕먹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감안을 해버려요. 애네들이 올라오는 거는 이렇지만 물량도 많고 종수도 많고, 그래서 감안을 하고 봐. 이제 독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업체 B]

6.3. AI 번역 환경에서 인간과의 협업

번역 비용 문제로 AI 기술이 도입되었으나 AI 번역의 한계로, 두 업체 모두 웹소설 특화 AI 모델을 활용하여 번역물을 생성한 뒤 인간이 감수하는 형태로 최종 번역물을 도출하고 있다. A사의 프로세스는 [글로서리 초안 작성(AI)→글로서리 검토→초벌 번역(AI)→1차 감수(AI)→수정→최종 검토]로 정리할 수 있는데, AI가 상당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AI가 웹소설의 초벌 번역뿐 아니라 글로서리 초안을 만들고, AI 번역물의 1차 감수를 진행하며 인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짚어내고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공한다. 그러나 작업을 끝맺는 것은 인간으로, AI가 일차 생성한 글로서리를 인간이 확인하고, AI가 1차 번역과 감수까지 끝낸 결과물을 인간이 AI의 제안을 검토하며 재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다시 최종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로 항상 번역을 하면 글로서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글로서리 초안은 AI가 만들더라도 사람이 검토를 하고요. 똑같은 단어도 작품에 따라 번역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 단어장으로 자동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이 많이 보고 있고. 당연히 초벌 번역이나 이런 것도 AI가 하는데 그다음에 좀 어색하거나 번역 티가 많이 난다, 너무 정확도만 추구한 문장이다 이런 거는 또 AI가 한 번 더 검수까지 해줘요. 그리고 사람 검수를 하고 이렇게 고쳐야겠다 생각까지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약간 헛갈리는 것들이 나와요. 사람이 이걸 한번 봐줘야겠는데 그럼 그런 거는 이제 사람한테 맡기죠. 사람이 AI가 결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부분들을 보고 아, 여기는 AI가 그래서 A, B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A랑 B 중에 뭐가 더 고쳐야 되는 건 알겠는데 A, B 중에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면 사람이 그중에 골라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한번 짚 읽고 읽으면서 이상한 부분 없는지 보고 이렇게 하고 출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근데 또 아무래도 출판을 하고 나서도 독자들이 가끔 이런 게 좀 잘못됐다, 하면 그 부분을 또 고치고. 이런 과정이, 루프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업체 A]

B사의 프로세스는 [원문 분석과 설계→초벌 번역(AI)→1차 수정(AI)→감수·현저화]로, 내부 인력이 작품 분석과 설계 작업을 진행한 후 AI를 활용해 초벌 번역을 진행한 뒤 다단계 감수 작업이 진행된다. AI 활용 전후 단계에서 사전 준비(용어집과 메인 캐릭터집 등 제작)와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전 작업을 AI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A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으로, AI가 초벌 번역과 1차 감수를 진행하고, 누락, 일관성, 용어 등 중요 부분을 수정하며, AI 번역과 수정이 끝난 후 원어민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원문에 업데이트 없이 최종 독자의 관점에서 흐름이 깨지지 않고 매끄럽게 읽힐 수 있도록 수정을 진행한다.

“제일 처음에 원문 분석을 해요. 어떤 장르이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큰 설계를 하죠. 작품을 들어갈 때마다 설계를 하는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AI 웹소설 특화 번역 엔진을 활용해서 초고를 뽑아내요. 그다음에 IP가 되게 좋다고 했을 때는 원문 대조를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시간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이 최종적으로 현지화 파트만 빠르게 집행을 해요. 그래서 AI 번역 엔진이 누락이나 일관성, 용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문제가 없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원어민이 봤을 때 기준을... 엔드 유저, 그 독자들이 보는 거잖아요. 독자는 원문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러니까 저는 그게 번역사 개입의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번역사들이 개입을 하면서 생략

하는 것도 있고, 고치는 것도 있고 약간 바꾸는 것도 있잖아요. 1:1 번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엔드 유저가 마지막에 봤을 때 전체 플로우로 봤을 때 깨지지 않아야 된다고 보니까 그러면 약간의 생략이 있을 수도 있고 각색 정도는 아니지만 그 선 어딘가까지는 저희는 플랫폼 안에서 허용하는 정도예요.” [업체 B]

즉, AI가 많은 분량의 텍스트를 1차 번역하고 교정 작업까지 진행하며, 누락과 일관성 등 핵심 부분들을 수정 및 보완하고 인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놀라울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품질 확보를 위해 AI 작업 전후 단계에서 인간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마무리 단계에서는 인간의 선택과 수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4. AI 결과물의 품질 평가

A사는 AI 활용으로 품질 검수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AI는 캐릭터의 스펠링이나 성별을 바꾸는 등 심각한 오류를 반복적으로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독자 몰입을 크게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품질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AI는 실수를 하는데 사람은 절대 안 하는 실수를 해서 바로 알아차리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면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거나 갑자기 캐릭터의 스펠링을 아예 다르게 하거나. 그러니까 루이슨이라는 인물이 있으면 이제 L-O-U-I-S-O-N인데 S-E-N으로 하거나 갑자기.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부분부분. AI니까 한 번만 실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 그냥 터무니없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너무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법한 실수를 하는데, 사람이 할법한 실수는 사실 정도가 경미해서 그렇게 몰입을 해치진 않거든요. 오타가 난다든지 그런 건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지 이러는데 성별이 틀리면 이거는 너무 성의 없게 보이잖아요, 글이. 그리고 AI가 실수한다 이러면, ‘이 글은 AI가 번역한 글입니다’ 이런 문장 자체를 아예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의견을 집어넣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이래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실수와는 다르게 못 거르면 독자의 몰입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고 번역에 대한 신뢰도를 너무 확 떨어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여기는 뭐 한 번도 검수를 안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수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 그래서 교정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조차도 자동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AI는 번역보다는 평가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게 오히려 더 어렵거든요.” [업체 A]

전체 줄거리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읽는 인간과 달리, AI는 저자의 의도나 작품 흐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AI를 통해 오류를 해결하거나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AI는 사람이 아니니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사람은 이상한 부분을 찾는 게 되는데 AI는 이상한 부분을 찾는 거를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읽기 행위는 읽으면서 줄거리를 대충 자기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아, 이런 흐름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 이러면서 자기의, 인지적인 그런 게 모두 다 동반이 되는 행위잖아요. 소설을 읽는다는 거는. 근데 AI는 압축을 시킬 때 사람이랑 다르게 이진 중요하니까 빼먹으면 안 되는 정보다, 이거는 안 중요하니까 생략하고 컴팩트해도 되는 정보다 이걸 몰라가지고 컴팩트를 잘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해서, 오류 자체를 집어내는 걸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사람은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어, 이거 이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만 애는, 작가가 의도한 부분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웹소설에서는 게임하는 웹소설이라서 상태창이 뜰 때도 많고. 그럼 AI는 작가가 넣은 건지 작가가 넣은 건지 구분도 못하고, 작가가 의도적으로 서사에서 비틀림 장치를 넣은 건지 작가가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도 사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성에 비해서 그걸 AI로 잡아내는 건 사실 되게 힘들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오류를 다 잡고 하는 거를 없애고 싶은데, 예를 들면 공장에서 빵을 100개를 찍어내면 2개만 맞봐도 ‘아, 이진 다 완성된 잘된 빵이야’ 이렇게 확신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데 그거는 번역에서 정말 잘 안되더라고요. 일부분만 봐서 잘됐다고 해서 절대 전체 퀄리티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 A]

따라서 AI 결과물의 품질 평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B사는 품질 평가 과정에서 용어 일관성, 고유명사, 가독성을 집중적으로 수정하고, 최종 독자 관점에서 감수를 진행하고 작품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원작의 재미와 감정 충실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번역 품질 평가를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용어 일관성, 고유명사, 그리고 자연스러운 Fluency. 원어민이 읽었을 때 어색한지에 대한 부분이어서 꼭 원어민 에디터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는

www.kci.go.kr

그거를 해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네가 유저라고 생각을 해라. 그냥 나는 웹 소설 좋아하는 유저다. 그리고 웹소설이라는 거는 문법 자체가 일반 소설, 정말 뭐 한강 작가님이 쓰신 그런 소설이랑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법의 기본도 많이 깨져 있고요. 재미 위주로 그 플로우적인, 그러니까 몰입도만은 깨지면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충실도, 독자에게 의도하는 긴장과 로맨스 코믹 요소 이렇게 번역본에 잘 녹아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데.” [업체 B]

두 업체 모두 AI 번역의 품질 평가와 교정 작업을 다단계로 진행하며, B사는 내부 전담 인원이 두 단계로 품질 확인 작업을 하며, 특히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모니터링을 담당할 QA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수자가 품질 확인 및 수정 작업을 마친 뒤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전담하는 별도 내부 인력이 있다는 의미다. A사도 내부 감수자가 최종 수정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으며 “영어를 잘하는” 정도로는 AI 번역 결과물에서 쉽게 오류를 찾을 수 없기에 다년간의 해외 거주 경험 및 장르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5. 감수자의 기대 역량

AI 결과물을 최종 검토하고 수정하는 감수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두 업체 모두 내부 감수자를 활용하며 감수자의 역량을 강조했다. A 업체의 경우 감수자는 번역 경험보다 해외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호하며, 원문을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 반응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매끄럽게 다듬을 수 있는 능력이었으며, 따라서 감수자 채용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해외 거주 경험과 문화적 차이의 이해도였다.

“AI가 정말 많은 부분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번역 경험보다도 해외에서 살다 온 경험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웹소설을 할 때는 게임 말투를 더 실감 나게 구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적절한 번역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말 좋은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더 트렌드에 맞는 번역을 추구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AI가 이미 1차적으로 글쓰기를 다 해주는 셈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수정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수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아, 이거 조금 트렌드에 맞지 않는대거나 아니면 말투에서 조금 더 뭐가 해외 원어민들이 이런 식으로 말 안 하는데 라는 거를 잘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데서, 국내파인데 번역을 정말 잘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해외에서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번역 경험은 좀 적을지라도, 물론 번역 경험도 많고 해외에서 많이 살던 사람이 베스트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 찾는 건 쉽지 않으니까, 해외에서 살다 온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어 여부도 물론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못하면 웹소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독자들의 반응을 생각하면 현지에서, 요즘의 인터넷 텍스트에 뭐가 더 적합한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업체 A]

AI를 활용해 일차 번역 작업이 되었으므로 번역 교육을 받은 인력보다 문화적 맥락에서 어색한 표현을 파악하고 웹소설 독자의 감각과 유행 등을 이해하고 섬세하게 고쳐 쓸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웹소설은 신조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므로, 예를 들면 “두쫘꾸” 같은 표현이 나왔을 때 현지 감성에 맞춰 바꿔 줄 수 있는 감각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B사도 정규 번역 교육을 받은 인력을 선호하지 않았으며, 언어적 역량이 약간 부족하거나 번역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웹소설 장르 이해도와 애정이 높은 사람을 선호한다는 의견이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매력과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스토리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웹소설 번역에서는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이야기 전개 흐름과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웹소설에 대한 애정이 깔려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대 나온 친구들은 번역 효율이 높아요. 근데 웹소설 번역은 그만큼 줄 수가 없어요. 시장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살짝 약하더라도 웹소설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훨씬 잘 해요. 웹소설 번역을 잘할꺼면 웹소설을 좋아해야 돼요. 만약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면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야 되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플로우가 있어야 돼. 그 스토리 라인이 있으면 번역할 때도 그 스토리대로 가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원문 대조해요. 근데 웹소설은 원문 대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웹소설 번역을 잘한다 그러면 영어가 좀 약하더라도 그 웹소설을 진짜 좋아해야 돼요.” [업체 B]

업체에서 감수자 채용 시 번역 교육에 대한 선호를 보이지 않은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AI를 활용해 번역 결과물이 나온 상태이므로, 언어 전환 능력보다 웹소설 장르 이해, 현지화, 작문, 편집 능력 등이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된다고 볼

수 있다. B사는 우씨아월드 사례를 예로 들며, 전문 번역가가 아니라 팬들이 번역했고 언어적으로 아쉬운 지점이 있더라도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인 만큼, 원문을 충실하게 옮기는 데 그치는 번역가가 아니라 웹소설 장르에 특화된 전문가, 즉 원작이 가진 세계관, 재미와 매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6. 향후 필요한 번역가의 역할

AI 번역 모델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웹소설 번역가 양성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에 흥미로운 답변도 있었다. 웹소설 번역은 AI 도입 전에는 비용 부담으로 거의 손대기 어려운 시장이었다는 점에서, AI 기술로 한국 웹소설의 해외 시장이 커지고 일정 규모로 형성되면, AI 한계와 번역 품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번역 시장이 커지며 실력 있는 웹소설 번역가의 필요성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적 기대도 있었다.

“AI로 번역 작업이 대체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다른 분야에서 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웹소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게 웹소설은 사실 AI가 있기 전까지 웹소설 번역가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많 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뛰 어들 생각 자체를 안 했던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AI로 인해서 한국 웹소설 시장 이 만약에 커지면 분명히 독자들 중에서는 더 높은 품질의 번역을 요구하는 사람 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 회사들도 이걸 냈을 때 수익이 이 정도 나오면 비용 이 정도 투자를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도들이 웹소설 번역가나 QC의 수입을 더 늘리는 방 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0% 대체는 어렵기도 하고, 결 국은 거의 수요 없던 분야에서 새로 생기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웹소설 시장의 경우에는 특히.” [업체 A]

AI 환경에서 향후 필요한 역할로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력 있는 웹소설 번역가이다. 두 업체 모두 ‘탐티어’ 번역가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했고, 퍼스널 브랜딩이 가능할 만큼 실력 있고 독자 선택

을 받을 수 있는 번역가는 계속 필요하며, 한국 웹소설의 해외 시장이 커진다면 그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이 경우 실력 있는 번역가란, 원문의 언어적 요소를 충실히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문에서 독자들에게 재미를 주는 요소가 8점이라 했을 때 번역본도 8점이 될 수 있도록”(업체 B) 만드는 번역가를 의미하며, 해당 콘텐츠 및 장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번역작가’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둘째, AI 번역의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AI 번역 결과물을 전략적으로 수정 가능한 AI 번역 품질관리 전문가다. AI 모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툴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AI 에이전트까지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 좋다는 의견이었다. 즉, AI 결과물을 원문과 비교 대조하여 수정하는 단순 작업에 그치지 않고, AI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품질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AI 모델 개발을 위해 고품질 언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정제하며 레이블링하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 문화적 뉘앙스를 깊이 이해하고 맛깔나게 옮길 수 있으며, 현지 독자 관점에서 섬세하게 문제를 짚어내고 수정 가능한 현지화 전문가다. 웹소설 번역에서 현지화 작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기대라 할 수 있으나 추가로 제안된 흥미로운 의견은, 멀티모달 콘텐츠 현지화 전문가에 대한 수요였다. 즉, 멀티모달 콘텐츠를 아우르면서,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 등 비언어적 요소까지 함께 살펴보고 콘텐츠의 관점에서 최종 QA를 진행하고 소비자 니즈에 맞춰 현지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언어적 요소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사와 배경의 어울림까지 고려하며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인재, 디지털 콘텐츠 영역의 현지화까지 가능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멀티모달 콘텐츠 현지화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 숏폼, 애니메이션까지 아우르는 현지화 전문가.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러니까 멀티모달을, 전체를 보고 큐레이션을 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요. 예를 들면 지금 숏폼 부분을 고도화를 시키고 있는데 북미 타깃이에요. 그럼 북미 타깃으로 스크립트를 짜서 만들었을 때 이 언어가, 이 그림과 잘 물어나오나, 이런 부분.” [업체 B]

www.kci.go.kr

넷째, 전체 번역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즉 PM 역할을 할 수 있는 번역가이다. AI 번역 과정에서는 전체 프로세스를 설계하며 조율할 수 있는 관리 책임자로서의 역량을 가진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의견이다.

“단순히 깔끔하게 정리된 글을 잘 영어로 옮기는 사람이라기보다 전체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 과정에서 뭔가를 바꿔가면서 주도해 가면서 결국 독자에게 가닿는 출간물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게 감독하는 사람이라면 높은 시장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번역은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게 옛날에는 번역가와 출판사의 조그만 상호작용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1에 가까운 저자와 번역가와 출판가,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근데 AI 출판의 시대가 다가오면 대량의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대량 출판의 시대가 왔을 때 번역의 질을 높인다는 거는 너무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량에서 출판과 번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퀄리티가 잘 나오게 파이프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체 A]

다양한 웹소설을 대상으로 글로서리를 제작·검토하며 AI 번역의 특징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오류 해결과 품질 확인을 거쳐 완성도 높은 최종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AI 번역, 독자와 장르적 특징, 제작 과정 등 전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해외 거주 경험 외에도 글로서리 제작, 번역과 감수, 현지화 작업까지 전체 프로세스 과정에 참여하며 얻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B사도 강조하였는데, AI 번역 프로젝트의 전체 그림을 보고 설계와 기획, 소통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중요성은 향후 더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7. 나가는 말

본고는 웹소설 특화 AI 번역 모델을 활용하는 업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업체 관점에서 AI 활용 배경과 가능성, 한계를 살펴보고 AI와 인간의 협업 및 감수자의 필요 역량, 향후 번역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AI 도입 배경으로 한국 웹소설 수출에서 번역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활용하게 되었으며, 그림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웹툰에 비해 텍스트 기반의 웹소설은 AI 활용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웹소설은 번역 품질

의 중요성이 크지만, AI 결과물을 활용할 때 안정적 품질 관리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번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해 초벌 번역과 1차 감수까지 진행한 후 전문가의 감수를 진행하는 형태로 작업하며, AI는 독자 몰입을 방해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어 인간의 품질 평가와 수정 작업이 빠질 수 없고, 작품 몰입도와 감정 충실도, 현지화를 고려해 철저한 감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AI 결과물을 최종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내부 감수자를 채용하며 감수자에게는 문화적 니앙스와 장르 이해, 현지화 역량이 요구되었다. 향후 번역가에게 기대되는 역할로는 실력 있는 웹소설 전문 번역가, AI 번역 품질관리 전문가, 멀티모달 콘텐츠 현지화 전문가, 번역 프로젝트 관리자가 제시되었다.

물론 이는 소규모 인터뷰 결과이므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크다. 향후 더 많은 업체 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업체 외에도 감수자와 번역자 등 다양한 실무자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결과는 AI 기술의 발전 앞에서도 웹소설 번역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AI 번역 모델을 활용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기까지 인간의 역할이 빠질 수 없으며, 웹소설 독자가 작품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번역의 품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번역 가능’ 수준을 넘어서 독자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즉 ‘팔릴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AI 결과물의 검토와 수정의 중요성이 큰 만큼 감수 인력을 적극 채용하는 추세이지만 번역 전공자에 대한 선호도는 크지 않았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물론 졸업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시장의 요구, 보수적 구조적 간극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겠지만, 실무 전반을 아우르는 번역 교육이 아니라 웹소설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르적 이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현지화 역량, 가독성 제고를 위한 글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AI 번역의 이해와 감수 역량, 웹소설 IP 확장성을 고려한 멀티모달 콘텐츠의 이해와 전환 역량, 전체 프로세스 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산학협력에 기반한 실무 참여형 번역 교육과정이 필수적이다.

정보라 작가는 최근 인터뷰에서 “외국 젊은 독자들이 한국 웹소설을 열정적으로 칭찬하는 모습을 현지에서 많이 접했다”며 “한국 문학이 꾸준히 외국으로 진출하려면 웹툰·웹소설 같은 대중적인 장르를 더 많이 번역해 소개해야” 한다는 의견

을 피력했다(이데일리 2025). 한국 웹소설의 번역은 한국 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저변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웹소설 번역 교육을 위한 학계와 업계, 정부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자경·김혜림. (2021). 「한국 웹소설 번역의 어려움 탐색: 인터뷰 조사를 기반으로」. 『통역과 번역』 23(1): 1-26.
- 마승혜·김순영. (2021). 「웹툰 한영 번역양상 및 멀티모달 기계번역(MMT) 활용 가능성 모색:의성어/의태어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5(4): 103-124.
- 박성준. (2024). 「AI를 활용한 웹소설 창작의 현재와 미래- AI 웹소설 창작 플랫폼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32: 199-241.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5). 『2024년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Abid, F. and Moon, J. (2024).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for automatic translation of Korean webtoon into foreign languages. *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 235-252.
- Chen, J. and Li, C. (2025). Context-Aware Neural Machine Translation for Web Novel Serialization: A Multi-Task BERT-Based Approach for Long-Form Narrative Consistency. In *2025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and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ISCIPT)*. IEEE, 586-590.
- Guo, L. and Amirdabbaghian, A. (2025). Exploring the translation of idioms by AI in Chinese internet literature. In Aquad, A. and M. H. (eds.), *Role of AI i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IGI Global, 293-326.
- Liu, B. (2024). An analysis of the overseas dissemination phenomenon and strategy of Chinese Internet literature. *Journal of Modern Social Sciences* 1(2): 345-352.
- Mei, S. (2019). China Literature and Caiyun Technology jointly launch the AI translation works to accelerate exportation [阅文与彩云科技合作上线 AI翻译作品 加速出海步伐], Tech 163. Retrieved from <https://tech.163.com/19/1225/11/F186PC3L00097U7R>(2026.4.1.검색).
- Wu, M., Xu, J. and Wang, L. (2024). TransAgents: Build your translation company with language agents. In *Proceedings of the 2024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ystem Demonstrations, 131-141.
- Yao, X., Kang, Y. B. and McCosker, A. (2025). Missing the human touch? A computational stylometric analysis of GPT-4 translations of online Chinese literature. *Translation Spaces*. Retrieved from <https://arxiv.org/abs/2506.13013>(2026.4.1.검색).
- Zhang, S. (2024). Machine translation of Chinese fantasy (Xianxia) novels: An investigation into the leading websites translating Chinese internet literature into English. In Rothwell, A., Way, A. and Youdale, R. (eds.), *Computer-Assisted Literary Transla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42-157.

[인터넷 자료]

- 동아일보. (2025). 노벨피아 글로벌, AI 번역 기반 운영 성과... 가입자 7만 명 도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1205/132908693/1>(2026.4.1.검색).
- 이데일리. (2025). 한국문학, 장르 언어 관계 없이 더 많이 번역돼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03926642332920&mediaCodeNo=257>(2026.4.1.검색).

- 중앙SUNDAY. (2025). 스텔라엔, 웹소설 기반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투니즈'로 구글플레이 창
구 프로그램 7기 선정. <https://v.daum.net/v/ym7QFvHEIV?f=p>(2026.4.1.검색).
- 한경. (2025). [2025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스타트업 CEO] AI 기반 K-웹소설 번역 및 유통 플랫폼
개발한 스타트업 '리베타'.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510316999d>(2026.4.1.검색).
- AI라이프경제. (2025). [AI 프리즘] 출판사의 인공지능 번역 실험 강행... 번역가들 “문학은 기계가 할
수 없다”
<https://www.aifn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53>(2026.4.1.검색).
- BeSUCCESS. (2025). 하이브마인드, AI 솔루션 '오로라'로 일본 시장 진출...한국 웹소설 번역·현지
화 사업 본격화. <https://besuccess.com/?p=177878>(2026.4.1.검색).
- NewsWire. (2025). 건국대 캠퍼스타운 'KU IR Camp 데모데이' 성황리 종료.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15385>(2026.4.1.검색).
- Platum. (2025). 서울대 학생 주도 액셀러레이터 스낵, '넥스텝' 7기 데모데이 성료.
<https://platum.kr/archives/261373>(2026.4.1.검색).
- Sixth Tone. (2025) AI Translation Is Helping Chinese Literature Go Global.
<https://www.sixthtone.com/news/1017094>(2026.4.1.검색).

This paper was received on 8 May 2026; revised on 7 June 2026; and accepted on 15 June 2026.

Author's email address

vandi98@naver.com

About the author

Jagyeong Kim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Seou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literary transl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